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ELEPHANT WALK  
가제 : 도보 여행을 떠난 코끼리  
저자 : Jane Kerr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7년  
분량 : -  
장르 : YA 소설



#### 두 라이벌 동물원의 무모한 내기가 부른 코끼리의 300 킬로미터 도보 여행과 그 시간을 함께한 소년

1872년 4월, 웨이블리 마켓에서는 에딘버러 주민들 거의 전체를 모여들게 만든 기상천외한 경매가 벌어졌다. 바로 서커스나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야생동물들의 새 주인을 찾는 경매였다. 몇 주 전, 영국 전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서커스를 운영해온 월터 웬웰 씨가 서재에 쓰러져 죽은 채 발견되면서 그가 해외 곳곳에서 사들이고 훈련시킨 이색적인 동물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다. 웬웰 씨가 의외로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동물들은 결국 경매장으로 오게 된 것이다. 소매치기로 먹고 사는 대니에게 이런 큰 행사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사람들의 지갑을 순식간에 빼낼 줄 아는 솜씨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 대니는 이번 경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일년 내내 일해도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면 한 몫 크게 잡을 기회는 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니는 새벽부터 행사장을 찾고, 마침내 경매가 시작됐다. 정신을 놓고 동물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넘쳐나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 대니의 눈을 사로잡는 구경거리도 넘쳐났다. 동물이라고 해봐야 고양이, 개, 쥐만 보며 살던 사람들의 눈 앞에 사자며 표범, 호랑이, 개코원숭이, 낙타, 하이에나, 영양이 줄줄이 나타나니 다들 환호하며 연신 박수를 쳐댔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흠을 가득 채우고, 열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틈타 대니도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가방을 활짝 열어 놓은 사람, 정신이 온통 경매가 이루어지는 무대에 다 쏠린 사람, 두툼한 지갑을 아무렇게나 주머니에 쑤셔 넣은 사람, 부주의하거나 멍청한 티를 팍팍 내는 대니의 먹잇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그런데 온갖 희귀한 동물들이 무대로 나와 차례로 새 주인을 찾아가던 중, 유독 대니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거대한 동물이 등장했다. 코끼리였다.

‘마하라자’라는 이름이 불리며 등장한 코끼리는 순식간에 홀 전체의 공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대니는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리라고 생각해보는 적도 없을 만큼 크고, 강한 이 동물을 보자마자 그

만 정신이 아득해졌다.

## 빅토리아 시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코끼리와 소매치기 소년의 기상천외한 여행과 모험

사람의 팔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긴 코, 나무 동치 같은 다리, 코로 긴 막대기를 자유자재로 돌리다가 경매사의 모자를 툭 건드리는 유머 감각까지 갖춘 마하라자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 자체였다. 태어나 가장 신기한 존재를 목격한 것도 잠시, 대니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한 탕을 위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손을 뻗었다가 그만 덜미를 잡히고 만다. 하필 유난히 별이가 좋았던 그 날, 태어나 처음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들키고 만 것이다.

하루 종일 훔친 물건들이며 돈을 모조리 빼앗긴 대니는 빈 손으로 돌아가면 소매치기 대장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 뻔하기에, 눈 앞이 캄캄했다. 대장의 매서운 손에 맞아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대니가 묘한 교감을 느낀 코끼리 마하라자가 대니에게 구세주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 갑작스러운 기회는 맨체스터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제임스 제임슨이라는 남자가 거액을 주고 마하라자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라이벌인 아서 올브라이트와 제임스 두 사람은 이 날 경매에서 각자의 동물원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야생 동물들을 앞다투어 여러 마리 구입했다. 마하라자는 제임스의 손에 들어갔지만, 이 육중한 동물을 맨체스터까지 데려가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큰 화물차에 겨우겨우 실었지만 마하라자는 순식간에 차를 망가뜨려버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아서가 놀려대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제임스는 무모한 내기를 제안한다. 마하라자가 300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맨체스터까지 걸어서, 그것도 단 7일 만에 갈 수 있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아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둘은 이기는 쪽이 상대방이 가진 야생동물을 전부 다 갖자는 서약서까지 쓴다. 이렇게 시작된 마하라자의 도보 여행은 두 남자의 무분별한 내기에서 시작되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마케팅 행사로 변모하고, 대니는 인도에서 온 ‘댄넵 왕자’ 역할을 맡아 마하라자와 함께 그 떠들썩한 행사의 주축이 되고 만다. 과연 이 여행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거대한 동물과 함께하는 위태로운 도보 여행이 시작되고, 대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만나며 온갖 사건 사고를 경험한다

### <저자 소개>

제인 커(Jane Kerr)는 BBC 라디오 프로듀서로, 20년 넘게 인쇄 매체와 방송사 기자로 활동해 왔다.

제목 : THE LAST MONSTER  
가제 : 최후의 괴물  
저자 : Ginger Garrett  
출판사: Delacorte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존재들,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운 괴물들의 수호자가 되어버린 소녀

소독약이 피부에 닿는 순간 퍼지는 지독한 냄새, 밤마다 숨죽여 울음을 삼킨 시간들, 화장실의 새하얀 타일 곳곳을 물들이던 시커먼 구토 자국,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아 리모컨만 하염없이 눌러대던 수많은 새벽, 소피아를 괴롭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마침내 끝났다. 암 투병을 하느라 두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내며 이 모든 시간을 견딘 소피아에게 마침내 자유가 찾아온 것이다. 의사들이 작은 몸을 덮친 암세포와 싸우는 동안 소피아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매순간 애를 써야 했다. 두 달간의 사투가 마침내 끝이 나고 퇴원한 후에도 다시 두 달 동안 엄마와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암으로 다리 하나를 잃고 의족을 사용하게 되면서 물리치료도 시작해야 했다. 그렇게 넉 달을 애틀랜타 아동 암 센터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치료도 막바지에 이르자, 소피아는 무겁고 불편한 의족을 차고 살아야 하지만 두 번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희망만 가질 뿐이었다.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머리카락은 윤기도 힘도 없어 부스스하기만 하고, 거추장스럽기만 한 의족까지 걸친 소피아는 그토록 꿈꾸던 자유를 찾아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지만, 내내 꿈꾸던 ‘새로운 삶’은 어쩐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중학교는 뭔가 다를 줄 알았지만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제일 친한 친구로 믿었던 알렉시스는 그 사이 어찌된 영문인지 태도가 돌변해서 소피아를 외면하기만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못된 여학생들은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어 소피아의 화를 더욱 돋웠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소피아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 갔다. 그나마 학교에서 소피아에게 활력을 주는 존재가 한 명 있다면, 귀여운 얼굴에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빌리다. 몇 마디 나눠보진 못했지만, 소피아는 잔뜩 위축되어 입을 다물고만 지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웬지 빌리다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 그런데 우울하게만 흘러가던 소피아의 생활은 우연히 손에 넣은 낡은 책 한 권으로 완전히 바뀌고 만다.

### 암과 의족을 안고 살아가는 내성적인 소녀에게 주어진 기상천외한 임무, ‘괴물들을 수호하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지막 제자이자 그리스 철학자인 제노가 쓴 이상한 우화집을 손에 쥔 그 날

부터, 소피아는 책을 통해 제노와 소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제노가 그 책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다. 먼 옛날부터 지구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괴물들을 지키는 단 한 명의 인간 수호자, ‘가디언’으로 소피아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제노는 이 은밀한 임무가 괴물을 통해 인간이 얻는 경험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면서, 대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맡겨졌다고 설명했다. 얼떨결에 괴물들의 수호자가 된 소피아는 처음에 제노의 이야기도, 세상에 정말로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눈앞에 하나 둘 나타나는 온갖 괴물들을 목격하면서, 제노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 문제는 이 괴물들이 다 착한 것도 아니고, 친절하거나 온순하지도 않지만 수호자는 무조건 이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견디기도 힘들었던 소피아는 그렇게 하루 아침에 괴물들까지 돌보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러나 커다란 덩치와 기괴한 외모 뒤에 숨겨진 괴물들의 외로움과 서글픔을 온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소피아는 늘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끼며 불안에 떨며 살아온 자신과 괴물들의 심경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숨어 지내야만 하는 특별한 존재들과의 교감 속에서 소피아가 느끼는 사랑과 두려움은 삶 전체의 변화로 서서히 이어진다.

#### <저자 소개>

진저 가렛(Ginger Garrett)은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극예술훈을 공부했다. 졸업 후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일하다가 전 세계를 여행했다. 과학, 역사, 여성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면서 강연을 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